



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협약서 내용 추가 보완’ 수정 의결... 본회의행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구체적 액수는 제외

지난 제395회 임시회 당시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던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제주도 간의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은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 협약서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우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라는 협약서의 명칭을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수정했다.

이어 강정 주민 치유 지원에 관한 내용에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 복합형관광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강정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 민군 복합형관광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부분에선 기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고쳐 구체적인 금액을 제외했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에 대해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정된 동의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취지 과제 구현을”

자치분권 2.0시대 대응 모색 어제 대구·경북권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영남일보, 대한민국 지방신문협회의 공동으로 이날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과제 진단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다.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경인권과 호남권에 이어 이번에 대구에서 대구·경북권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의

미 등 입법 성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취지에 맞는 과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경권의 현실과 주요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어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오창용 대구경북연구원장,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 중앙-지방 협력회의법, 고향 사랑 기부금법 등 아직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700여명분 반납

농수축경제위원회

“지난해 집행잔액 4억원... 추경 반영에도 집행 소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채 2000명분 넘게 반납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7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결산 심사에서 이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초과했다며 신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사업”이라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사업집행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도의회에서도 불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심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신청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었는데 불용이 4억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집행잔액이 4억원이면 2760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올해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것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지난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불용은 상당히 아쉬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족분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번 추경 잔액발생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다혜기자



정세균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지사직 유지한 채 경선 임하겠다”

양승조 충남지사 제주 방문 제2공항 질문에는 말 아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사진) 충남도지사가 제주를 방문해 “내가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선언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제주에 도착한

후 제주4·3평화공원을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퇴와 관련해 “원 지사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성실히 도정 운영에 임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양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양자 절충, 합의점 찾는 게 쉽지 않다. 주민 의사 고려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자연 훼손 등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공항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공항) 신설과 (현 공항) 확충 중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강다혜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